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창의 융합 혁신 포항  
지속가능한 환동해중심도시

제32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폐회)

2026. 2. 6.(금)

# 시 장 인 사

po<sup>h</sup>ang  
포항시

# 인사말씀

제328회 임시회 폐회

2026. 2. 6.(금) 11:00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일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2일에 제가 경북 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오늘 의회 회기 중에는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임기가 아직 남았음에도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시장직을 조만간 사퇴하게 되어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까지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시의원님들께도 송구스러운 마음이 큼니다.

무엇보다 지난 12년 동안 의원님들과 함께 포항의 더 큰 도약과 발전을 위해서 동고동락(同苦同樂) 해온 시간들은 앞으로도 제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사상 초유의 지진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해 삭발 투혼을 주저하지 않으며 피해구제 특별법 제·개정 및 공동체 회복, 도시 재건을 위해 함께 애써온 시간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코로나19 위기도 절제와 배려의 시민 정신을 바탕으로, 선제적 진단 검사 실시 등 적극적인 방역으로 슬기롭게 극복한 순간들이 기억납니다.

사생결단의 포스코 본사 서울 이전 문제도 시민의 하나된 뜻과 의지로 전격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유례없는 초대형 폭우를 뿌린 힌남노 태풍으로 포항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가용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복구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하였습니다.

지난해 관세 등 대내외 여건 악화 속에서 지역 철강산업이 어려운 가운데, 지역 전체가 합심하여 K-스틸법 제정 등 철강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것은, 포항이 위기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 가는 도시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함께 뜻을 모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과 우리 포항의 위대한 저력을 널리 보여주신 시민들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일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포항시민의 염원과 희망들을 현실화 하기 위해 애썼던  
지난 12년을 돌아보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철강 단일의 산업구조는 이차전지, 수소, 바이오, AI 등  
신산업과 MICE, 해양관광 등 콘텐츠 산업으로 다양해졌으며,  
도심 곳곳의 공원과 물길은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 속에서 경쟁력 있는 포항으로 나아가는  
도전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고,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만들어 온 포항의 변화와 도약이  
계속되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온 ‘포항의 도전정신’이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포항이 지금까지의 역사를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뀐,  
과감한 도전정신은 앞으로도 포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더 넓은 무대에서 ‘포항의 도전정신’을 펼치고자  
합니다. 지난 12년간 포항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 크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온 ‘포항의 성공모델’이 경북과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경북 제1도시 포항의 3선 시장의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듭, 경북 도지사 출마를 위해,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고 조만간 사퇴하게 되는 점,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함께 즐기롭게 포항시정을 이끌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별이 내일의 만남을 위한 시작이 되길 바라며 의원님 한분 한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